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017.91 (+10.19)		834.38 (-1.8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4.020 (-0.036)		1361.05 (-19.95)

소상공인 명절자금 103조 푼다… 만기 연장·우대금리 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 79.6조 준비
4대 은행, 내달 16일까지 특별대출
신규대출 각 6조, 만기연장 9조 제공

금융권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2조6000억원을 푼다. 명절 전후로 상품 확보와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 및 만기연장을 공급하며, 정책금융기관도 총 2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 은행권, 79조6000억원 공급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74조원(신규 24조5000억원·연장 36조원)을 공급하고, 5대 지역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도 4조1000억원(신규 2조5000억원·연장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농협은행·수협은행도 총 14조5000억원(신규 5조5000억원·연장 9조원)을 공급한다.

4대 은행은 공급 규모와 운영기간, 금리 인하폭을 통일했다. 4대 은행은 오는 10월 16일까지 특별대출을 운영하며, 각 6조125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9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대출에는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해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제공한다. 대출 및 만기연장은 각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신규대출 5조원 및 만기연장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폭은 최대 2.3%p로 차등 적용된다. 수협은행은 10월 30일까지 특별대출을 운영하며, 신규대출 5000억원 및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는 최대 1.2%p 인하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특별 대출을 운영한다. 공급 규모는 각 은행이 신규대출 4000억원 및 만기연장 4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폭은 최대 1.0%p다.

iM뱅크는 오는 10월 8일까지 특별 대출 기간을 운영한다.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대출 5000억원을 공급하며,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을 종합해 적용한다.

광주은행은 9월 30일까지 신규대출 5000억원과 만기연장 5000억원을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오는 10월 6일까지 신규대출 2500억원 및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우대금리는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도 명절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SC제일은행과 제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씨티은행은 9월 23일까지 신규대출 및 대출연장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시 금리는 거



차레상 올릴 싱싱한 문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대구 북구 매천수산물시장에서 한 시민이 차레상에 올릴 문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

래 실적 및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래액이 체해야 하는 경우 미리 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자금을 인출해 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책금융, 23조원 공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한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을 도합해 총 23조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오는 10월 12일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공급한다. 금리 인하폭은 최대 0.4%p다.

기업은행도 같은 기간 동안 명절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공급 규모는 신규대출 3조7000억원 및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이다. 금리 인하폭은 최대 0.3%p까지 적

용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0월 12일까지 특별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 2조1000억원, 만기연장 8조원 규모다. 기존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과 비교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보증료나 보증비용 등도 우대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애플, AI서버 개발… ‘AI 추론’ 저변 확대

‘M8 울트라’ 탑재 기업용 AI서버 검토
삼성·SK ‘추론 메모리’ 시장 새 기회

애플이 자체 칩을 활용한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버 개발을 검토하면서 AI 추론 인프라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AI 서버 사업자가 다양해지면서 고용량·저전력 메모리의 탑재 수요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론용 메모리 사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자체 칩인 ‘M8 울트라’를 탑재한 기업용 AI 서버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M8 울트라2개를 탑재한 기본형과 4개를 탑재한 고성능형이 거론되며 AI 개발업체와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주요 고객으로 예상된다. 출시 목표 시점은 2029년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애플이 검토하는 서버는 대규모 AI 모



Chat GPT가 만든 애플의 기업용 AI 서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형상화한 이미지.

델을 학습시키는 용도보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구동하는 추론에 초점을 맞춘다. 자체 칩을 서버 단위로 연결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 ‘NV링크 퓨전’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서비스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의 용량과 전력 효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면서 이를 임시 저장하는 ‘KV 캐

시’의 용량도 커져 고용량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추론 시장 확대에 대응해 저전력 D램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SOCAMM2’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SOCAMM2는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양산과 판매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4월 192기가바이트(GB) SOCAMM2 양산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겨냥해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인프라에 대응한 메모리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AI 가속기 위에 HBM을 수직으로 쌓는 ‘zHBM’을 공개했다. 연산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00억弗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

野 ‘상업적 합리성’ 졸속처리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이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모되는 대미투자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워 졸속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산업부)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각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전략적 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보고와 상임위 간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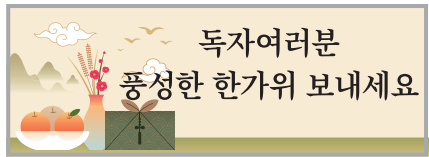
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다. 2·3호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전체 설비용량 6.3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이번 사업은 총 투자비가 223억달러에 달하며 2032년까지 분납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2호 투자 사업인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인수를 확보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김경관 산업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5~10%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



metro



▲국방부 “DMZ 폭발, 유엔사 현장조사 요청으로 수색로 개척하다 발생”
▲野 유영원 “DMZ 폭발 사고, 북한 묵함지뢰 의심…의도적 매설 가능성” /사진 뉴스시

▲추미애 “재정위기 논의, 이재명·김동연 까발리기 아냐”
▲조국, 송영길 겨냥 “변희재 손잡은 송영길, 친일파 행동 가짜워”

▲靑 “농지 전수조사, 투기만 잡을 것…농지 팔기 싫다면 안 팔아도 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법적 근거 없어” 25일 만에 거부